

## 10. 학개 - “다시 시작해라!”

학개 1:7-8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떤 교회에서 한 남자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기도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자기 자신 보다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신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기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부자 아빠를 허락해 주세요.”

**학개는. . .**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바사의 고레스왕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허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끌려올 때, 함께 압수해 왔던 것들도 가지고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성전기물들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조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던 이들이 돌아왔으나 빈궁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던 땅고 기르던 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 18년 동안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해도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예언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명령 하셨습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시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화로운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태어날 때 명절과 관계있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 학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예언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예언과 경고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학개는 성공한 예언자 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자고 했고, 성전이 지어 졌으니 말입니다.

##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은 여유가 있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회복시켜주신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도 한번 쬔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런 감격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현실’이 눈 앞에 다가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정을 있으나 그들의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니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학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생활이 어려워져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니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회복’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빛나간 열정’입니다.

귀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들이 아닌가요?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사사기]강해 인데,

책 처음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중간 단계인 사사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였기에 더 싸울 수 없었고,

그곳에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하여 타협했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 우상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학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곤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곤고해진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완전히 갇추어진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열정에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완벽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것

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마도 예언서를 통해 계속되는 하나의 맥이 있다면 신앙을 일반화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이 아닐까요? 세상은 상식과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와 닿았던 부분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개인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임하셔서 개별적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론 우리가 대중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개인적 만남은 개인적 책임과도 연관이 있겠죠.

최현식 목사의 책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에 보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하여 아주 흥미롭게 쓰고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의 몸과 마음가짐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 지 금세 알 수 있다. 가장 열정적일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 옷을 입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섬세하게 신경을 쓴다.*

*왜? 내 여자, 내 남자라는 의식 때문이다. 이것이 배려고 사랑이다.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 친구이다. 너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경 쓰고 배려할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 일대일의 관계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따져 보는 것이다. 연인이 서로를 배려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세하고 세밀하게 따져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분이 이것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이 일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주가 시험기간인데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공부하는 걸 원하실까? 따져보라.*

*예배에 늦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실까? “*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친밀함이다.*

## 자기 행위를 살필찌니라. . .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찌니라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것을 다른 말로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더욱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바울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를 알라’는 것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그릇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2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영적예배’ 그리고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핵심이 무엇이나면, 자신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재기 목사의 [하나님의 사역레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랍비인 시몬 벤 조카이가 생각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두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아들과 나다. 만약 한 사람이라면 그건 나다!’

내가 아는 한 청년 주에 어떤 면에서 이 랍비를 닮은 친구가 있었다. 그는 교회 청년부 모든 자매가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착각이었다.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의 전성기 시절 비행기를 탔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슈퍼매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 필요가 없다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은 슈퍼맨이면 그냥 날아가시지 비행기는 왜 탔느냐고 쏘아붙였다.

바울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는가?”

사람들의 타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가 참 멋진 표현을 했는데,

**‘정직’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

2017년 미국에서 있었던 LPGA 메이저 대회인 KPMG 챔피언십에서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 세계 랭킹 1위였던 18세의 리디아 고를 2위로 밀어 내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전 세계 모든 골프 관련기사가 박인비 선수에 이야기로 장식될 때, 이영표 선수의 마음을 움직인 기사가 있었답니다.

당시 리디아 고는 54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대회 2회전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리디아 고는 2라운드 13번 홀에서 어드레스 자세에 들어간 직후 공이 스스로 움직였고, 그 상황은 자신을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스스로 신고해 벌타를 하나 받았고, 1타차로 컷 탈락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지 않았다면 ‘55개 대회 연속’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전 시즌 개막전에서도 리디아 고는 똑같은 상황에서 1벌타를 자진 신고했고, 결국 1타 차이로 우승을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준 일이죠.

결국 정직은 하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때, 우리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학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은 없었습니다. 학개 1장 4절과 5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괴로운 시기를 보낼 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전이 황폐되어 있어도 자신의 집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문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질 때까지 잘 모를 때가 많은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은,

먹고살만 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삶이 피폐해 졌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황폐함과 영적 곤핍함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1장 5-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든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는 이와같은 말씀을 형편없는 추수가 끝나가는 시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은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함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며, 'careful thought'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야하는 그 길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때 우리는 가장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정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문제를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할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가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캇 솔즈가 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인 것에서 '위대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하여 다윗은 우리야에게 했던 방법을 사용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나단을 제거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픈 지적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고 '회복'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철학자인 엘버트 허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함의 최종적인 증거는 비판을 분개하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에 있다.”

주의 깊게 자신을 살핀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니 자신의 문제가 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몸에 병이 있으면 혹 병이 의심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부끄럽고 은밀한 부위까지도 다 드러내고 맡깁니다. 조금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의사가 때로, X-Ray를 찍자거나 MRI, MRA, CT, 같은 것을 찍자고 해도 군소리 하지 않고 허락합니다.

때로 경제적인 염려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귀찮은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번 이런 검사를 했는데 참 힘이 듭니다. 저에게는 약간의 폐쇄공포증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말 없이 검사에 응하죠. 이유는 자신을 살피는 일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러했듯이, 오늘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프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찌니라.”고 말이죠.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당한 영적 비판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행한 비판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비판은 우리 몸의 고통과 같아서 병든 상태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병이 들었다는 증거이고, 영적으로 황폐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개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월과 계산법이 다릅니다.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고 계산한 것에 의하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 3주 만에 유대인들은 공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들을 자르고 옮겨서 겨울이 오기 전에 기초 공사를 마무리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이르러 말씀합니다. 학개 2장 6-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복은 단순히 이전 것과 같은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전 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디도 그를 같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자신만의 ‘시므이’를 경험 한 적이 있다.

한 자신만만한 젊은 심학생이 베테랑 전도자 무디의 말에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몇 번이나 설교가 심각한 방해를 받자 참다못한 무디는 결국 세계 그는 최고의 연변으로 그 젊은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 젊은이가 비참하게 창피를 당하자 군중은 무디에게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다. 그런데 다시 한참 설교를 하던 무디는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회 초반에 저 아래 형제에게 어리석게 굴었던 걸 모든 분 앞에서 사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무디는 진정한 리더십과 위대함을 보여 주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죄였을 뿐이지만 그는 ‘먼저’ 회개하고 사과했다.

‘힘’을 지닌 자가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인격과 청년의 미래를 더 중요시 여겼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학개 선지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